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부문 미래지식포럼’ 개최

-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혁신’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위원 등 참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5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중구)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 방안’을 주제로 「외국인고용지원부문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용허가제(E-9)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

고용허가제 혁신방안은 △ 외국인 구직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제공, △ 외국인근로자 선발 디지털화, △ 체류지원 모니터링 전산화, △ 외국인력 상담센터 챗봇 서비스 등 「선발에서 체류까지 고용허가제 모든 과정의 디지털전환」이 주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해 16개국 외국인근로자 78,025명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41%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 강화 등 인권보호에 기여해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최우수그룹에 선정된 바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령화, 생산인력 미스매치 등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 빈 일자리 해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적시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외부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도 성공적인 고용허가제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기획부	책임자	부 장	권기승 (052-714-8541)
		담당자	차 장	공진아 (052-714-8550)



□ **목적 등**

- **(목적)** 경영자문위원과 함께 고용허가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여 학습과 성장(L&I)에 기반한 경영혁신 추진
- **(추진방향)** 현재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외국인력정책 제언에 대한 집중 토의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025.6.5.(목) 10:00, 프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 2F
- **(참석자)** CEO, 고용노동부, 옴부즈만 등 약 50명
 - **(내부)** 이사장, 국제인력본부장, 외국인력국장, 사업 수행 직원 등
 - **(외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HRDK 옴부즈만 위원 등
- **(논의주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 방안
- **(주요내용)** 위촉장 수여식, 내외부 전문가 발제, 패널 토의, 질의응답

□ **세부 일정**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0:00~10:05	개회,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05~10:15	2025년 HRDK 옴부즈만 위촉식	CEO
10:15~10:20	인사말씀	CEO, 외국인력담당관
10:20~11:00	발제 ①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방안 ②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외국인력정책	외국인력국장 노민선 위원
11:00~11:50	자유토론 ^{패널} 및 참석자 질의 응답	패널 등
11:50~12:00	총평 및 마무리 말씀	CEO, 국제인력본부장
12:00~13:30	오찬 및 마무리	23F 파노라마라운지